

김오진 1차관, “국가산단 조성에 기업 의견 적극 반영할 것”

- 28일 기업설명회 열고 정부-지자체 원팀 적극 지원 의지 표명 -

□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11월 28일(화)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철도·수소·우주발사체·원자력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.

○ 이 자리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, 윤희태 완주군수, 공영민 고흥군수, 손병복 울진군수 등 철도·수소·우주발사체·원자력 관련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6개소*가 위치한 지자체 및 27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였다.

* (청주) 철도, (전북 완주, 경남 울진) 수소
(전남 고흥) 우주발사체, (경북 경주, 경남 창원) 원자력

□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별 지원전략, 입지장점 등 투자 매력을 적극 홍보하였고, 사업시행자(LH)가 산단 조성계획 및 기업지원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며, 15개 기업이 국토교통부-지자체-LH와 투자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였다.

□ 김 차관은 “중앙정부에서도 신규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기업설명회를 마련하였다”면서,

○ “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각종 인·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, 기업 투자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개선”할 것이라면서, “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속도를 높여 기업이 투자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○ 아울러 “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의 의견을 사전 계획단계부터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덧붙였다.

2023. 11. 28.

국토교통부 대변인